

트럼프 ‘관세 유예’에 가상자산 반등… 추가 상승은 ‘글쎄’

비트코인 약8.5만 달러 거래
리플·BNB 등 알트코인도 회복

미·중 무역 긴장에 달러 약세
가상자산 시장 투자심리 살아나

트럼프 발(發) ‘관세전쟁’ 여파로 가
라앉았던 가상자산 시장에 투자 심리가
살아나고 있다. 트럼프의 대규모 관세
정책 발표 이후 1BTC당 7만 6000달러
까지 내렸던 ‘가상자산 대장주’ 비트코
인은 관세 발표 이전 수준인 8만5000달
러 수준을 회복했고, 주요 알트코인 가
격도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.

20일 가상자산 시황중계사이트 코인
마켓캡에 따르면 ‘가상자산 대장주’ 비
트코인은 이날 정오께 1BTC당 약 8만
5200달러(1억2100만원)에 거래됐다. 지
난 2일(현지시간)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
모 관세 정책 발표 이후 최저 7만4600달
러까지 내렸던 비트코인 가격이 관세 발
표 이전 수준을 회복한 모습이다.

같은 날 원화거래소에서는 비트코인
이 1BTC당 약 1억2300만원에 거래됐
다. 지난 9일 기록했던 월중 최저가인 1



우리나라를 포함해 일부 국가에 부과하기로 했던 상호관세를 90일 유예한다고 발표하면서 미국
증시와 함께 가상자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. /업비트 홈페이지

억1200만원 대비 약 9.8% 상승했다.

알트코인(비트코인 이외의 가상자
산)의 가격도 상승세다. 관세 발표 이후
이달 초 대비 각각 9.4%, 16% 하락했던
리플(XRP·시가총액 3위), 바이낸스(B
NB·시가총 4위)는 관세 발표 이전 수준을
회복했고, 솔라나(SOL·시가총 5위)는 이
달 들어 가장 높은 값에 거래됐다. 다만
발행량 증가와 거래 감소로 부진을 지

속 중인 이더리움(ETH·시가총 2위)은 약
세를 이어갔다.

가상자산 가격이 상승세인 것은트럼
프가 전 세계를 상대로 예고했던 ‘상호
관세’를 유보하면서, 위축됐던 가상자
산 시장의 투자 심리가 다소 회복됐기
때문이다.

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일(현지
시간) 모든 국가에 부과하는 10%의 ‘보

편관세’와 57개국(한국, 일본 등 56개의
무역국, 그리고 유럽연합)에 적용하는
‘상호관세’로 구성된 대규모 관세 정책
을 발표했다. 국가별 최대 84%에 달하
는 강도 높은 관세가 예고되자 가상자
산, 증시 등 위험자산 가격은 일제히 하
락했다.

지난 9일(현지시간) 트럼프 행정부
는 예정대로 상호관세를 부과하기 시작
했다. 그러나 시행 13시간 만에 상호관
세를 90일간 유예하겠다고 입장을 뒤집
었다. 다만 중국에는 기존보다 높은 관
세를 적용할 것이며, 이외 국가는 보편
관세에 해당하는 10%의 관세를 부과하
게 된다고 덧붙였다. 트럼프의 관세 유
예 직후 비트코인 가격은 하루 만에 8.
5% 급등했고, 주요 알트코인의 가격도
10% 넘게 상승했다. 이후 가상자산 가
격은 약한 강세를 지속하고 있다.

미·중 무역갈등으로 달러 가치가 하
락한 것 또한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이
바지했다.

트럼프는 상호관세의 유예를 결정했
지만, 대(對)미 무역 보복에 나선 중국
에는 예외적으로 145%의 높은 관세를

책정했다. 이후 양국의 무역 갈등은 희
토류·반도체 등 특정 품목까지 번졌고,
미국은 중국에 ‘245%’의 관세를 부과하
는 등 사실상 ‘금수조치’를 결정했다.

양국의 무역 갈등이 격화하면서 시장
에서는 달러 기피 현상이 발생했다. 주
요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
러 인덱스는 이달 초 103.949(100보다
높을수록 달러 강세)였지만, 지난 18일
에는 99.23까지 하락했다. 달러 가치가
하락하면서 가상자산의 상대 가격은 상
승했다.

전문가들은 미·중 무역 갈등에 기반
한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당분간은
가상자산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기 어려
울 것으로 내다봤다.

암호화폐 리서치 업체 K33리서치는
“비트코인은 최근 글로벌 불확실성 속
에서 기대만큼의 안전자산 역할을 하지
못했다”라며 “비트코인의 희소성은 투
자자에게 매력적일 수 있지만, 실제로
는 글로벌 유동성 위기나 금융시장이
불확실한 상황에서 금과 같은 (안전자
산의) 역할을 맡진 못했다”라고 분석했
다. /안승진 기자 asj1231@metroseoul.co.kr

“조합원과 매일 소통하며, 의지할 수 있는 금고 만들 것”

새마을금고 새 얼굴

성 성 식 갈현동 이사장

재선성공 후 ‘일신우일신’ 영업기조
연체율·유동성 자산 관리에 총력
조합원 밀착소통·문화 프로그램 강화

“금고와 조합원이 한마음 한뜻으로
어려운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. 고객들
의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
있도록 매일 회의를 한다. 조합원이 의
지할 수 있는 금고를 만들 것이다.”

성성식 서울 은평구 갈현동새마을금
고 이사장은 메트로신문(메트로경제)
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. 성 이사장은 지
난달 ‘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
장 선거’에 단독으로 출마했다. 무투표
당선으로 재선에 성공했다.

올해 갈현동 새마을금고의 영업 기조
는 ‘일신우일신(日新又日新)’이다. 성실
하게 매일매일 발전된 상황을 만들겠다
는 포부다. 지난해 말 기준 갈현동 새마



성성식 갈현동새마을금고 이사장

을금고의 총자산은 2273억원이다. 연간
164억원 증가했다. 같은 기간 영업수익
은 1억4100만원 상승한 100억원이다.

성 이사장은 올해 조합원과 거리를 좁
힐 계획이다. 새마을금고에 대한 조합원
의 이해도를 높이고 문화활동을 추진한
다. 체육교실과 노래교실, 요가교실, 파
크골프교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
련했다. 임직원과 회원이 직접 만나 소
통하는 시간도 조성할 계획이다.

그는 올해 ‘연체율’과 ‘유동성 자산’

등 두 토끼를 모두 잡는다는 방침이다.
우선 연체율을 낮추기 위해 매일 여신
팀과 회의를 한다. 직접 보고를 받고 필
요에 따라선 채권을 매각할 예정이다.
오는 7월 출범하는 새마을금고자산관
리회사에 거는 기대가 크다. 그러나 점
진적으론 외부에 맡기지 않고 자체적으
로 처리할 수 있는 우량 여신을 확보할
방침이다.

성 이사장은 새마을금고중앙회 서울
지역 이사직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. 서
울지역 새마을금고와 중앙회를 조율하
는 가교 역할을 한다. 서울지역 금고 이
사장을 만나 우량여신 확보 노하우를
공유한다. 올해는 지역 금고가 함께 성
장을 도모할 시기라는 입장이다.

공제도 눈여겨보고 있다. 공제 영업
관련 ‘스펙업’을 해보겠다는 계획이다.
공제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선 직원이 관
련 상품을 완벽하게 이해해야 한다. 가입
자에게 꼭 필요한 상품인지 고민한다. 올
해 관련 직원 교육 또한 계획하고 있다.

자금 수신에 관한 고민도 크다. 이자

비용을 줄이기 위해 금리를 높게 책정
하지 않았기 때문이다. 평균 수신금리
를 유지하면서 회원을 유도해야 한다.

그는 “새마을금고가 사회에 봉사하고
지역에 환원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
다”고 강조했다. 그러기 위해선 올해 건
전성 제고와 경영 역량을 키워야 한다.

과거 새마을금고는 리테일(소매금
융) 중심 대출만 취급했다. 부동산 프로
젝트파이낸싱(PF)이나 공동대출 등 고
위험 여신을 운영할 역량이 부족했기
때문이다. 시간이 지나 PF 때문에 어려
움을 겪고 있다. 지난 2023년 새마을금
고가 은행이나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겪
은 위기를 되풀이한 만큼 개별 금고의
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.

성 이사장은 “지난 2023년 자금 유출
을 막기 위해 일선 금고는 물론 금융당
국, 중앙회가 모두 나서서 고생이 많았
다”라며 “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조합원
과 회원에게 다가갈 수 있는 낮은 자세
를 취할 것”이라고 말했다.

/김정산 기자 kimsan119@

신한은행, 디지털금융 교육 전국 확대

‘신한 학이재 부산’ 개관

신한은행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
디지털금융 사각지대 해소와 금융사기
예방을 위한 디지털금융 교육센터 ‘신
한 학이재 부산’을 개관했다고 20일 밝
혔다.

신한은행은 2023년 9월 인천, 2024년
10월 경기 수원에 이어 부산에 ‘신한 학
이재’를 개관함으로써 디지털금융 교육
플랫폼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고령자·장

애인·어린이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생
애주기형 금융 교육 체계를 더욱 견고
히 구축했다.

‘신한 학이재 부산’은 은행 창구 환경
을 재현한 디지털 금융기기 체험 존, 시
각적 이해를 돕는 쉬운 설명 콘텐츠, 발
달 장애인의 학습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
커리큘럼 등 디지털금융 생활에 필
요한 능력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
록 구성했다.

또한 금융사기 예방 플랫폼 ‘신한 지



정상형 신한은행장(오른쪽 두번째), 박형준 부산광역시장(왼쪽 두번째), 김미영 금융감독원 금
융소비자보호처장(오른쪽 첫번째), 문우택 대한노인회 부산광역시연합회장(왼쪽 첫번째)이 기
념 촬영하는 모습. /신한은행

켜요’와 연계해 고객 스스로 위험을 진
단하는 교육을 진행하며, ‘신한 어린이
금융체험교실’ 운영 공간으로도 활용해

조기 금융 교육 기회도 확대 제공할 계
획이다.

/나유리 기자 yul115@

/안상미 기자 smahn1@

분양 캘린더

넷째 주 5377가구
수도권 분양 활기

올 들어 주춤했던 수도권 분양 시장
이 활기를 찾은 전망이다.

20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4월 넷째
주에는 전국 6개 단지 총 5377가구가 분
양을 시작한다. 일반분양은 3977가구다.

청약은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‘해링
턴스퀘어산곡역’과 부산시 해운대구 중
동 ‘해운대하이루프33’, 경기도 용인시
남동 ‘용인프르지오원클러스터2·3단
지’ 등 6곳에서 진행된다.

모델하우스는 경기도 하남시 천현동
‘교산프리지오더퍼스트(공공분양)’, 경
기도 의왕시 고천동 ‘제일풍경채의왕고
천’ 등 6곳이 오픈 예정이다.

효성중공업은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
87·903번지 일원에 산곡재개발정비사
업을 통해 ‘해링턴스퀘어산곡역’을 분
양한다. 지하 3층~지상 최고 45층, 14
개동 총 2,475가구 규모다. 이 중 전용
면적 39~96㎡ 1248가구를 일반분양한
다. 수도권 7호선 산곡역 초역세권 단지
다. 산곡초가 단지내에 위치한 ‘초품
아’로 산곡중, 세일고, 인천외고 등 학
교가 인근에 위치한다. 롯데마트를 도
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, 한국GM 본사
가 인근에 위치한 직주근접 입지다.

대우건설 컨소시엄은 경기도 하남시
천현동 130번지 일원에 ‘교산프리지오
더퍼스트(공공분양)’를 분양할 예정이
다. 지하 2층~지상 최고 29층, 10개동,
전용면적 51~59㎡ 총 1115세대 규모
다. 이 중 사전청약 866가구를 제외한
249가구에 대해 본 청약에 나선다. 수도
권 5호선 하남검단산역 역세권이며, 스
타필드 하남, 하남시청 등 다양한 인프
라를 갖추고 있다. 대상지는 3기신도시
교산지구에서본 청약을 시작하는 첫번
째 단지이며 분양가상한제 단지다.